

의수 장애인에 뒷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과도하다”

진정인, 왼쪽 팔 의수 착용 경증장애인 경찰 “1시간 지나도록 퇴거불응해 체포” 인권위 “긴박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에게 뒷수갑을 채워 체포·연행했다는 진정사건에 대해 과도한 장구류 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관이 체포 이유 및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한 점에 비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일선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의수를 착용한 자신에게 뒷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손님과 업주와의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는데, 강아지 분양 문제를 놓고 급전적으로 싸움이 벌어진 상황이었다”며 “계약금 관련 분쟁은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사안임을 A씨에게 고지하고, 소비자보호원 등 다른 절차를 통한 것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어 “계속 매장 안에 있으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했지만, A씨는 출동 1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던

서 퇴거에 불응했다”며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등이 있음을 고지하고 퇴거불응으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의 반항이 심해 뒷수갑을 사용했으며, 지구대에서는 한 쪽 수갑을 사용해 A씨를 좌석에 착석시켰고 경찰서 인계 시에는 앞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바디캠 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A씨를 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사실 요지 및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들 권리 외에 진술거부권도 체포와 동시에 고지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인권위는 “미란다원칙 범위에겐 진술거부권이 포함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사건 체포 일시는 2019년 11월로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의 개정 전이므로, 당시 경찰관들이 A씨를 체포할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의수를 착용한 A씨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체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긴박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경찰관들은 A씨가 왼쪽 팔에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을 인

하지 못하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신체적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수갑을 채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는 ‘수갑 등 사용 지침’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2를 위반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청장 등에게 상당한 이유 없이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과 과도한 장구 사용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즐거운 눈썰매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야외음악당에서 어린이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록적 한파에 눈까지’ 광주, 지하철 이용객 10.8% 증가

대설·한파특보 발령 6~9일 나흘간 일평균 3만9901명 이용

50년 만의 한파 속에 적설량 10cm의 안팎의 눈이 꾸준히 내려 교통 혼잡이 빚어진 가운데 광주도시철도 1호선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광주에 대설 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난 6일부터 지난 9일까지 나흘간 도시철도 1호선(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은 3만990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둘째 주 수요일~토요일(12월 9~12일) 사이 하루 평균 3만5989명이었다. 한 달여 만에 10.87%가량 이

용객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광주 지하철 1호선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이용객 수가 급감, 하루 평균 4만여 명을 넘기지 못한 것과 비교해도 상당수 시민들이 지하철로 발길을 되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폭설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지·정체 현상을 빚는 지상 교통과 달리 지하철은 안전하고 정시 도착이 가능하다. 시민들이 기상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지하철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지난 6일부터 대설 특보가 발효됐다.

광주는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최심적설량이 10.9cm를 기록했다.

한파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8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5도를 기록했다.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지난 1971년 관측 이후 50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록적인 한파 속에 눈까지 꾸준히 날리며 도로 노면이 얼어붙어 광주 도심 곳곳에서는 지·정체 현상이 빚어졌고 크고작은 접촉 사고가 잇따랐다.

오유나기자

‘최강 한파’ 무안 송어양식장 집단폐사·농작물 냉해

전남 해역 곳곳에 저수온 경보·주의보



북극 한파로 전남지역 해역에 저수온 경보·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11일 무안군 해역엔 한 송어양식장의 송어가 집단 폐사했다.

북극 한파로 전남지역 바다에 저수온 경보·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무안군 해역엔 송어양식장의 집단 폐사와 농작물 냉해 등 피해가 발생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무안군 해역엔 한 송어양식장 바닷물

이 얼면서 송어 1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피해금액은 900여 만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구체적인 피해상황과 복구와 농작물 냉해 등 피해가 발생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무안군 해역엔 한 송어양식장 바닷물

리도부터 해남 송지면 남단·고흥 득량만·여수 가막만은 4~8도로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저수온 특보는 오는 16일 정도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저수온 대책 종합상황실과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농작물 냉해와 수도관·계량기 동파 피해도 잇따랐다.

구례 감자 재배농가 24곳의 10ha, 나주 딸기 농가 1곳의 0.2ha, 나주 고추 재배농가 2곳의 0.2ha가 냉해 피해를 입었다. 동파 피해는 수도관 20건, 계량기 233건이 접수됐다. 신안 가거도와 진도읍 일원은 단수 피해가 발생해 식수를 비상 공급했다.

해남에서는 102세대에 정전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추위에 떨어야 했다.

전남도는 한파 피해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녹차, 유자, 월동배추, 양파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환기자

‘높은 이자 약속’ 18억 사기 혐의 40대 여성 징역 2년

제주 갈옷 제작 사업을 한다고 속여 주변 지인들에게 18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피해자 B씨 등 2명에게 ‘갈옷 판매 사업’을 위해 원단 매입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총 17억9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돈을 빌릴 당시 A씨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